

2015년 3월 8일
학원선교교육주일
장학주일을
지킵시다!



CONTENTS

INTRO

03 2015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 목회서신

전용재 감독회장

04 설 교

최재화 감독 교육국 위원장

08 학원선교회장 메시지

김종훈 목사 학원선교회 회장

10 총무 인사말

김낙환 목사 교육국 총무



NEWS

12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 예배문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을 위한 예배 교육국

14 교목활동1

매향여자고등학교 강영옥 목사

16 교목활동2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주금섭 목사

18 계통학교와 자매교회와의 동역활동

경화여자고등학교와 신평교회 김정석 목사

21 우리교회의 학원선교와 교육 이야기

영동지방 행복한교회 오필록 목사

24 감리교계통학교 설립자의 학원선교와 교육

한울학원 박우승 장로

28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의 구현을 위한 활동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의 활동 사역 함승수 목사

32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의 구현을 위한 활동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통한 학원선교와 교육 이용환 사무국장



부록

36 감리교계통학교와 자매교회 현황

38 감리교계통대학교 현황

39 관련기관 임원 현황

40 기독교학교 교육현장

2015년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 목회서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학원선교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용재
감독회장

돌아오는 3월 8일은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선교초기부터 교육사업을 통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러는 의술을 배우려고 스크랜턴에 게 찾아온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시작하면서 1886년 6월 서울에 “배재학당”을 정식으로 시작하였고, 스크랜턴 대부인은 1885년 10월 정동에 선교 부지를 마련하고 여 학당과 사택을 마련하여 “한국의 부녀자들이 보다 좋은 한인이 되며, 한국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혼을 통하여 훌륭한 한국”이 되게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하였고 왕비께서 “이화학당”이란 이름을 지어 보내주었으며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배화학당 및 평양 광성 학교,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 등을 건립하여 교육 사업에 진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학교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예배와 종교교육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교육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교차하고 정보화시대의 특성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끼치며 세속주의 물결에 신앙적인 질문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육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입니다. 학원선교교육은 단지 한 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인격과 교양, 신앙을 갖도록 하는 전인적 인간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신앙과 인격과 교육으로 세워 갈 때 건강한 교회와 나라가 세워 지는 것입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을 맞아 모든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학원선교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장과 교목,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천여 감리교회와 160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 특별히 학원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교목, 학원선교사, 기독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치하를 드립니다.



좋은 교사

마태복음 7:28-29

디모데후서 1:10-14

최재화 감독
교육국 위원장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최고의 랍비입니다. 히브리어로 랍비는 선생님(요20:16)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랍비라 부르심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랍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마23:7, 8). 이같이 말씀하심은 선생과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고 무겁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낙심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도 말씀했습니다(막9:42). 야고보 사도는 약 3:1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며 선생된 자의 더 큰 책임과 심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 앞에서 교사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다시 한 번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엘 로빈저는 ‘좋은 교사’란 책에서 좋은 교사의 요건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1)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 2) 인간적으로 좋은 성격,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라야 한다.
- 3)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소유해야 한다.
- 4)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가르쳐야 한다.

- 5) 공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교육을 할 수 있는 재질이 있어야한다.
- 6)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친밀함 속에서 교육해야 한다.
- 7)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가르쳐야 한다.
- 8) 학생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야한다.
- 9)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 10) 배우는 자의 심정으로 늘 반성하고, 평가하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성경과 교회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좋은 교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대의 교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 직접 교육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족장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교사 등을 통해서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님들을 가장 좋은 교사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차 매 최고의 위대한 교사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설교(Preaching), 교육(Teaching), 치유(Healing)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세'와 '능력'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첫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의식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모세의 권위, 율법의 권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의 소명감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낸 일꾼이요 종입니다.”라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사라는 소명의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 등은 냉냉한 가슴을 가지고 형식적인 율법의 세부조항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말과 행동의 일치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 서기

관들은 외식과 형식 곧 위선적인 이중성 속에서 가르쳤기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과 행동의 일치 속에서 진리를 가르쳤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사랑하라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넷째,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저녁, 한밤중에 수시로 기도하면서 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배우셨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말씀을 배웠고, 회당에서 암송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와 지혜서의 박사였습니다.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사단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마태복음4장). 예수님은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마5:18). 좋은 교사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째, 사람들의 처지와 이해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의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은 한곳에서만 가르치지 않고 역사의 전체 무대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 가정, 시장, 산, 바다, 해변, 등에서 가르쳤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罪)라는 말이지, 도둑질, 남을 해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罪)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가르쳐야 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라는 의미 속에 귀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것, 견고한 것,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요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복되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교사 자신도 믿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확신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것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교육이고 기독교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딤후4:11-13절에 보면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 1)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은혜스러운 말, 복스러운 말, 믿음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 2)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거룩한 행실을 하여야 합니다. 품위 있는 행실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을 하여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행실을 하여야 합니다.
- 3)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만 합니다. 눈물을 드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 4)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5)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한번 교사의 직분을 맡았으면 힘들어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충성을 교사의 직분을 통해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님들을 가장 좋은 교사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차 매 최고의 위대한 교사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QQ

계2:1-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다 보면 마침내 진짜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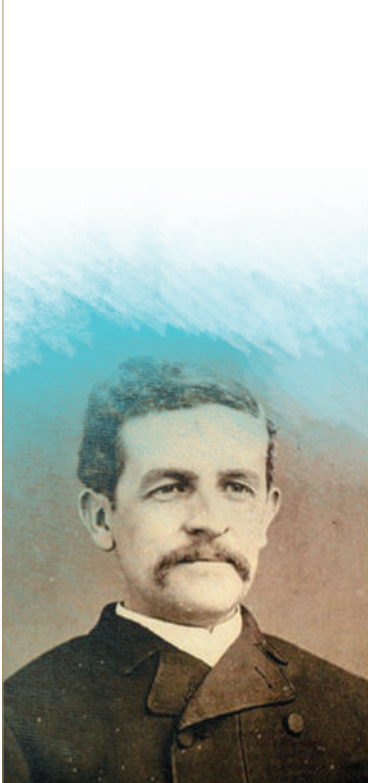
오늘도 학원의 현장에서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교목들과 학원선교사들, 그리스도인 교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힘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된 인재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원선교 교육 · 장학주일을 맞이하며

김종훈 목사
학원선교회 회장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리교회 성도들과 감리교계통 학교의 교목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년 3월 둘째 주일은 전국 감리교회가 감리교계통학교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학원선교 교육주일 · 장학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학원선교교육은 맥클레이 선교사가 1884년 7월 3일 교육과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고종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8월 3일 정동에서 고영필, 이겸나 두 학생을 데리고 교육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태복음 20장 :26-27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배재학당을 세우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효시로 하여 스크랜튼이 1886년 5월 31일



에 이화학당을, 남감리회 캠벨 여사는 1898년 10월 2일에 배화학당을 세웠었습니다. 또 배재학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선교사들은 1887년 10월 8일에 지금의 정동제일교회의 전신인 뽀엘교회를 세웠고, 배화학당에서 시작된 예배는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학원선교교육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영화(1892), 광성(1894), 정진(1896), 정의(1899), 루시(1903), 호수돈(1904), 송도(1904), 미리흙(1906), 송덕(1906) 등의 학교가 설립되고 기독교 정신 속에서 육영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학원교육은 선교활동의 발판이 되어 우리나라의 현대식 신교육의 기초를 이루었고, 아울러 민족과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훗날 민족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복음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원선교교육과 학원현장은 심각한 위기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안티 기독교의 SNS 등을 통한 활동과 내부적으로는 기복적 신앙과 개교회주의, 성장위주로 인한 맘몬 우상숭배, 교회와 사회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음전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학원선교교육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현장이 어둡고 사회에서의 복음전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감리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선교교육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으로 훈련된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은 감리교회와 감리교계통 학교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가는 사명을 학원선교교육을 통해 감당해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을 지키는 감리교회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영혼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학원선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한 마음으로 학원선교교육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원선교 교육 · 장학주일을 성수하자

김낙환 목사
교육국 총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에 산재한 감리교회와 감리교 계통학교 위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15년 3월 둘째 주일은(3월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학원선교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아펜젤러(H.G. Appenzeller) 선교사가 오시던 바로 그 해인 1885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학원선교를 시작하셨고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동량들을 양성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한글학자 주시경, 감리교 감독 김종우, 의학자 오궁선, YMCA 활동에 헌신한 신흥우 박사 등 건국 초기의 지도자들은 모두 감리교학교인 배재학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아펜젤러의 교육 이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하여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아펜젤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신, 기독교 정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의 이런 교육철학은 곧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독립운동과 건국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오늘날의 학원선교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르침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을 실현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는 힘을 모아야 하고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원선교에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목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회는 학원선교교육에 교목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감리교계통학교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목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지원하여 주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학원은 하나님이 주신 황금어장입니다. 학원선교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학원선교교육주일 준비+

장학주일을 위한

- 1 한 주일 전에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회 주변 초 · 중 · 고 학교 교장, 교사, 학생을 초청 하되 특히 기독교생 동아리나, 교목이 있는 경우 초청하여 예배순서의 일부를 담당케 한다.
- 2 학교 입학식과 개학식 후 처음 모이는 주일이므로, 입학 축하예배 또는 졸업 축하예배를 겸하여 신입생과 졸업생을 위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다.
- 3 교회에 장학예산이 있으면 이날 예배 중에 장학금을 전달 하고, 이날 헌금을 장학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한다.
- 4 학원 선교에 보다 적극적인 교회라면 지역의 교사, 학생 들은 토요일에 초청하여 간담회, 자매결연 등을 가질 수도 있다.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

장학주일을 위한

▶ 인근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로의부름		다 함 께
시 편 목 상		사 회 자
경 배 찬 송	9장	다 함 께
교 독 문	83번(빌립보서 4장)	다 함 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함께드리는기도		다 함 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희에 빠져 비행과 탈선을 일삼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세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우가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 젊은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청소년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 영	3장	다 함 께
대 표 기 도		학생중에서
하나님의말씀	마 7:28-29. 딤후1:10-14	학생중에서
특 별 찬 양	성가대 또는 인근 학교의 찬양단의 찬양	성 가 대
말씀의증언	좋은 교사!	설 교 자

(담임목사 또는 인근 학교 교목)

목 회 기 도		설 교 자
봉 헌 찬 송	574장	다 함 께
봉 헌 기 도		교사중에서
성도의 교제	초청된 인근학교 교장, 교목, 교사, 학생 소개,	
장학금 수여		담 임 목 사
사랑의 찬양	복음성가(좋은신 하나님 혹은 사랑의 띠)	다 함 께
축 도		담 임 목 사

부모와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좌담회

예배 후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교우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의 생각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좌담회를 갖는다.

발제 : 부모대표, 교사대표, 학생대표

주제 : 오늘의 청소년, 과연 이대로 좋은가?

발제자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이 보이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며, 진행자를 중고등부 교사 중에서 선임하여 의견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아이들은
연주자에 따라
수시로 반응을
달리하며 다양하고도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목회에 임하는
교목들은 또한
행복합니다. ○○



강영옥 목사
매향여자중학교 교목

매향 여자고등학교

우리 학교는 1902년 미국 북감리회 여선교회에서 보낸 스크랜턴 대부인에 의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화학당을 1886년 설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근대식 교육을 시작한 분입니다. 아마도 한국 여성교육의 효시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스크랜턴 대부인이 서울에 이어 1902년 수원읍에 3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수원 최초의 근대식 여성교육의 시작이 바로 우리 매향학교입니다. 당시 스크랜턴은 봉건제도에 얽매어있던 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시급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고 한국의 미덕과 아름다운 품성 위에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개화시키고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저마다 아름다운 인생을 개척토록하기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스크랜턴의 숭고한 뜻에 따라 우리 매향은 113년간 경천애인-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신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학교교훈 경천애인은 기독교적 가치와 인생관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기 지나도록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지역사회에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 온 우리 매향학교는 수원지역의 명문 전문계 고등학교로써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올해로 사회 곳곳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19,49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선교와 교육입니다.

교육과 선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신앙을 지닌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데 온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교목실과 기독교인성부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모든 학사일정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는 일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감리교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으로 전교직원이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 각 교실에는 찬양이 학생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도록 학교 방송국에서 아침을 여는 찬양을 방송합니다. 매주 수요일 1교시 전교생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때는 각 학급의 특색이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학급헌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선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뮤지컬과 유명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명사초청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극을 주기 위한 기독교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독교 문화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기독교 메시지가 감성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선교를 위해 조직된 청소년선교회가 매주 화요일 기도회와 목요 성경공부를 통해 믿지 않는 학우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를 함으로 영성훈련을 통한 종교적 심성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 미혼모 돕기의 일환인 홀트의 '아이사랑 공간'운동을 비롯하여 굿월 스토어와 연계한 장애우돕기 헌옷 수거, 사랑의 쌀 나누기, 김장나누기, 도울학생 장학금 지급 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의 오랜 전통이 된 3일간의 신앙부흥회와 여러 절기 예배를 통해 기독교 신앙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품성에 기독교적 사랑과 미덕이 깃들 수 있도록 각 학년별로 단계화된 예절교육의 실시, 배려하는 태도와 고운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옛날 아이들과 비교하여 지금의 아이들은 말씀과 예배를 대할 때 참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원선교를 하는 교목들은 목회패러다임과 스타일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심 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는 그리 쉽게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시는 더욱 치열해지고 경쟁은 더욱 첨예화된 교육현장, 그에 더한 종교편향의 지양하라는 교육기관의 철학 없는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학원목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원목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이들은 투명하고 맑게 울리는 영혼의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연주자에 따라 수시로 반응을 달리하며 다양하고도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목회에 임하는 교목들은 또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꿈꾸어 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슴에 품어 기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십대 시절 학교에서 접했던 믿음을 교회를 통해 평생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머지않아 교회를 이끌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그런 미래를.

호수돈 여자고등학교 선교부의

찬양과 말씀축제

주금섭 목사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목

김윤재, 이한나 학생

선교부 회장, 총무

매년 열리는 “찬양과 말씀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그 행사는 저희 학교의 자랑이고 또한 저희 선교부의 영적 동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학교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수돈여고는 115년 전에 미국 갈월 선교사에 의해 처음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때는 대전이 아닌 개성이었지요. 그러다가 6.25전쟁으로 인해 이곳 대전에서 다시 개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학교 교훈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을 위해 살자’ 입니다. 표현이 촌스러운가요?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멋진 교훈이라고 칭찬을 하더군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저희 선교부의 존재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선교부의 활동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행사는 생략할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호수돈의 자랑거리인 5월 말에 열리는 ‘찬양과 말씀 축제’ 입니다. 올해도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16번째로 열렸습니다. 축제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은혜집회입니다. 1,2,3학년 선교부 100여명 되는 회원들이 잘 준비하였지요. 이번에도 대전 시내 청소년들을



○○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1:9) QQ

비롯한 학부형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 열기는 마치 청소년 수련회 부흥집회에 온 것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찬양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충만이구나’모두가 느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행사를 다 마친 후에 함께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호수돈의 찬양집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희망이 보인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저희 선교부원들의 자랑거리인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학교에 교목님 두 분이 계시는데, 늘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호수돈을 거쳐간 많은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도 한 몫을 하고 있지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1,2학년 친구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틈을 내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감동입니다. 찬양팀(아히야), 찬무팀(그루티기), 악기팀(아시엘)과 그 외 학교의 모든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여러 팀들이 있는데, 날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시간에 틈을 내어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쉬는 토요일까지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습하기 위해 모였는데 기도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집회에 은혜가 넘치는 것도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여 매해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행사를 갖게 되는데 1부에서는 여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2부: CCD, CCM, 풍트, 무언극 등, 3부에서는 본 찬양으로서 함께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며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과 결단의 기도, 마지막으로 합창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행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그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님들과의 마찰, 준비 하면서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올 부짚으며 기도하며 준비하던 나날들.....지금은 감사, 감동, 감격뿐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을 가지고 방학 동안에도 이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공부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호수돈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호수돈 선교부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 없다고 핑계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도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선교부 활동을 통하여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동행

경화여고와 신풍교회 이야기

김정석 목사
신풍교회

1. 기적의 문을 두드리며...

똑, 똑, 똑...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여고 2학년 학생 두명이 수줍은 듯 쭈뼛거리며 사무실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응? 그럼~ 당연히 들어와도 돼~!”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는데 얼굴이 낯선 아이들 이었습니다. ‘평소에 나와 별로 대화도 없던 녀석들인데 무슨 일이 있길래 내 방을 찾아왔을까?’궁금해하며 아이들에게 의자를 건넸습니다. “와~여기가 목사님 사무실이에요? 처음 들어와 봐요. 신기하다...” 정말로 신기하다는 듯이 두리번거리며 구석 구석을 살피는 아이들이 마치 초등학교생들 모습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너희들 목사님 방에 처음 와보는구나... 자... 그럼 목사님 방에 처음 온 귀한 손님들인데 그냥 있을 수 있나? 무얼줄까...?”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기도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 혹은 그냥 궁금해서 들리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늘 준비해 놓고 있는 음료와 작은 쿠키를 건네주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이거 너무 반갑고, 목사님 방을 찾아와주어서 고마

워. 이거 별거 아니지만 먹으렴.” “우와 이런 거까지...감사합니다.” 자율학습을 하다가 늦은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플텐데 웬지 쥬스와 과자를 만지작 거리기만할 뿐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괜찮아. 그냥 부담갖지 말고 먹어”그럼에도 쥬스와 과자를 손에 들고 어색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며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고2가 되어서 공부하느라 힘들지?”말문을 열기 위해 내가 먼저 질문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저런 뉘드리를 해댔다. 아이들이 쏟아놓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더니

표정을 바꾸어가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매일 전도한다며 내게 교회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는 잘하는게 하나도 없는거예요. 친구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말이예요. 말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생활하는거 보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전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죽어도 교회는 안 다닐거야’라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중학교 시절에 교회 다니는 친구의 위선과 거짓 때문에 상처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왜 그리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그랬구나...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목사님, 그런데 경화여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해서 제가 이 학교에 왔거든요. 사실 지원할 때도 다른 건 다 좋는데 기독교학교라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싫은거예요. ‘내가 잘못왔나 보다... 전학가야 하는 거 아냐...?’라고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다 사라지고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이렇게 변한게 너무 신기한거예요...” 그런 그 두 아이의 공통된 고백을 들으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아이들이 잘 먹는 떡볶이를 마구마구 무한리필로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은 그 해에 학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러한 아이들의 기적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매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하게 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화여고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느 기독교학교에서나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가슴 떨리는 기적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은 자매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학교에서는 학교의 어떤 재정으로도 종교를 위한 항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학원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목들은 자매교회의 지원과 기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실제적인 선교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음을 알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적의 문은 자매교회의 기도와 도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2. 기적의 열매를 품어가며...

경화여고는 김득연, 최진순 두 장로님께서 기도와 소망 중에 경기도 광주에서 40여년 전에 시작한 학교입니다. 두 분은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의 일꾼을 배양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동성학원 20년사에 의하면 “여성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지역에서 이 사회, 이 나라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광주에 경화를 설립한

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독교학교의 선교현장이 그나마 긍정적이었지만 시대의 변화로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학원목회 현장은 그야말로 불가능의 시대를 이겨가야 할 광야와 사막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화여고에는 김연규감독님이 시무하시는 신풍교회가 경화여고의 강력한 후원군으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십 수년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가장 모범적인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풍교회는 경화여고와 자매결연을 맺기 시작할 때부터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선교비로 후원해 주시는데 그 열정이나 섬김이 십 수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한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드러나고 표시도 나지 않는 선교의 현장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신풍교회에서는 매년 학원선교주일이나 기독교교육진흥 주일을 맞이하면 자매학교인 경화여고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해줍니다. 그러한 초청에 배가 도면 교목실에서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시행했던 선교의 현황을 영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며 기적의 열매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함께 나눈다. 뿐만 아니라 자매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사들이 특별찬송을 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부장님들이 학교를 대표해서 전 성도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고나면 자매교회에서는 그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드려졌던 헌금 일체를 선교비로 모아서 교목실에 전달하는 특별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담임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더불어 학원목회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때마다 김연규감독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경화여고를 생각하면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경화여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기도와 후원으로 큰 도움을 받는 학교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학원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동행과 섬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열매가 잉태되곤 합니다.

3. 기적의 열매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경화여고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자매교회인 신평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는 다른 기독교학교들과 동일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드리는 정기예배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 절기에 맞추어 드리는 절기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전도축제를 하고 신앙특별집회를 하고 성가합창경연대회를 하는 모든 행사들이 선교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입생들이 경화여고에 입학하게 되면 입학기념으로 모든 입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구입해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학생이라든지 무종교인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자매교회에서 주는 고귀한 입학선물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러한 씨앗들이 떨어지고 그것이 기적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비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나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拂되기도 하고, 세례받는 학생들을 위한 기금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매년 12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받은 학생들에게는 기념으로 사진과 더불어 세례증을 근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 넣어줍니다. 세례받는 아이들에게는 의미있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학원목회 현장에서 진행되고 쓰이는 일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감격을 누리곤 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자매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없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경화여고에서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매교회의 부흥과 담임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 1년을 계획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만나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원선교에 대한 열정과 후원에는 전혀 흔들림없이 지속하고 있는 신평교회가 있기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화동산에서는 오늘도 기적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경화여고가 속한 동성학원에는 경화여자중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경화여자EB고등학교 3개의 학교가 있다. 경화여중은 대림교회와 경화여자EB고등학교는 만나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두 학교 역시 경화여고와 신평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기도와 후원으로 자매교회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입시 위주의 학교사회, 금전제 일주의, 극단의 이기주의와 물질중심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혼이 살아나는 불꽃을 피우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교목들은 기도하며 청소년들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매교회의 동행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의 동행이 기독교학교와 자매교회와의 동행을 통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기독교학교와 자매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행복한 교회의 행복한 학원선교와 교육 이야기

오필록 목사

충북연회 영동지방 행복한국교회

꿈을 심어주는 것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공통점은 꿈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난해서 학원을 다니지 못해 공부를 못한다는 것.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공부 못한다는 것과 꿈이 없다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엔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곧 인생의 낙오자라고 각인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늘 성적이 최우선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과 빈약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삼고 그 대학을 방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각의 팀별로 정보를 수집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자료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학교방문 준비사항을 발표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준비한 다음 방학 때 방문합니다. 승합차로 서울 어느 장소에 내려주고 대중교통을 통해 각각의 학교를 찾아가 미리 섭외해놓은 대학생들을 만나 직접 캠퍼스 투어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안내하는 대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
유치원 봉사



는 학교에 대한 역사와 자랑을 많이 해달라고 했고 반드시 도서관을 둘러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의무적으로 1가지 이상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는 각자가 질문했던 것과 느낀 점들을 나눴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면 서울의 전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농촌에 사는 학생들이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이며 계획하고 방문하는 것이 문화적인 면에서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문을 방학때를 이용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익숙해졌고, 처음에는 서울 놀러만 다니다가 점점 학교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게 되었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소박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 나가는 것이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해 봄으로써 세계관이 넓혀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작은 시골의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경비 때문이죠. 학생들과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불가능한 것들을 해결 나가는 그 과정이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1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손가정의 학생들은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부모가 있는 학생들도 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가정 형편에 경비를 만들기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마음으로 각각 저금통을 만들고 동전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무모한 일에 학생들도 따라 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게 무모하게 진행하는 일에 그대로 따라 주었던 학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게

되었고, 미리부터 어렵없는 일이라고 낙심하고 따라오지 않았던 학생들은 모두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양재단에 청소년 비전 트립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일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도시교회의 선교지 방문 프로그램과 함께 하면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결국 동남아 선교지를 방문하여 함께 봉사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알아서 모두 준비해준 덕분에 쉽게 참여했던 도시의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권 만드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직접 가서 신청하면 간단하지만 결손 자녀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랐기에 감격 또한 남달랐습니다. 한 번의 외국 여행이었지만 그들에겐 적잖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지 모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탑승을 해야 하는데 5시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환전해서 점심을 사먹고 선물을 사서 약속장소에 모이기로. 그리고 다녀와서 자신이 뭘 먹고 뭘 샀는지 자랑하기로. 그리고 반드시 혼자 다니기로. 처음에는 모두들 기겁을 하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만들어 가며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마트에 가서 선물을 사고 모두들 가관이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활동할 장을 만들어 줘야

학생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언제나 학교에서의 평가에 갇혀 있다. 학교 성적 대학입시 봉사시간... 이런 것들을 교회서도 제 공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기를 지도자로 키워 나갈 수 있는 포상제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축구교실 홀리 클럽 봉사팀 기타교실 드럼 등등의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고 교회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서 단순하게 공을 차면서 시작했던 축구교실은 생활체육센터와 연결되면서 코치의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축구교실이 되고 학생들도 점점 많아져 놀면서 학생들과 만나는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



인도네시아 봉사활동



인도네시아 의료봉사 도우미



1. 축교교실, 코치선생님과 학생들
2. 자기 개발을 위해 키타배우기
3. 홀리클럽 봉사팀 - 하천 오물줍기



담치유과정의 하나로 축구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홀리 클럽 봉사팀은 매주 지역 하천을 청소하면서 봉사 활동시간이 필요로 했던 그들에게 봉사시간을 채워 나가는 일거양득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자원 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정식 봉사팀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교회로서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이미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되었다. 봉사 활동하는 학생들은 처음엔 교회학생들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친구의 친구들이 합류하면서 숫자도 20여명으로 늘어났다. 단순히 봉사 시간을 얻기위해 시작했던 학생들도 점차적으로 봉사정신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갔다.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뤄 간다는 것은 그 결과가 비록 미약해 보였지만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에 있어서는 최고였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매주 뭔가를 실천해 나가고 이를 지속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다. 스스로 해 낸다는 것의 효과는 대학에 가서였다. 대학생생활은 고등학교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포상제는 스스로 자기 생활을-과업을 만들어 가는 좋은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일

조손가정의 학생들은 늘 의기소침해 있었다. 남들은 부

모가 해주는 밥 먹고 다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집안 살림을 해가며 지낸다. 남들이 다니는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세상에서 평생 약자로 살아가야 할 그런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키워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시골에 사는 것이 경쟁력이 되도록, 가난하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도록, 부모 없이 사는 것이 상처와 성장기의 결함이 아니라 경쟁력이 되도록 의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불쌍하고 측은한 관점으로 보는 목회자가 아니라 희망의 씨앗으로 보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였고 그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적이 필요했다. 가장 빠른 길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길-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일대일 말씀양육과 예배중심의 생활이 되도록 시도하게 되었다.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는 양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진실한 사랑 속에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만나 거듭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저절로 생활에 변화가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저절로 개선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청소년 목회에 중요한 점은 먼저 은혜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리교계통학교 설립자의 학원선교와 교육

박우승 장로

온양한울학원 설립자

학원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신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와 한울 가족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민족이 함께 겪은 민족적 수난과 더불어 크고 작은 만고풍상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6·25피난길에 무심코 들고 나온 몇 권의 일기장과 성경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피난민들이 모이는 시골 대술교회에 다니면서 배우지 못한 부녀자들을 위해 야학당을 세워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심훈의 소설「상록수」의 영향으로 농촌 계몽에 눈뜨게 되어 농촌운동에 열심을 품고 활동하던 어느 날 농촌운동을 하는 김경신 선배를 만나 보다 넓은 농촌계몽운동

가가 되려면 공부를 하라는 말에 부산으로 피난 온 연희대학교 신학과에 입학 하였고 기독교학생(YMCA)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다가 1954년에 농촌자녀교육을 위해, 고2때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받은 유산일부를 새한학원에 기부해 인명중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학2학년, 20살 때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시작한 학원 선교이었지만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의 근원이 학원선교였습니다. 그 후 새한학원 설립기본재산을 기반으로 1970년 폐교직전의 성화학원삼화중학교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경영 인수하여 권장학교 인가를 받아 학생을 모집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교사를 지어 1972학년도 중학교학생을 배정 받고 1973년 삼화여자상업고등학교(현 온양한울고등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온양한울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한울”은 우리 옷



을 구성하는 씨실, 날실에 실처럼 한올만 풀어져도 옷 전체가 풀려 버리는 것처럼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들에겐 공부 잘하는 몇 명의 학생들이 서

울대등 좋은 대학에 몇 명 진학 하였는가가 학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기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신 것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1. 사랑의 씨알 가꾸기

본교 설립 이념 교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학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개 교육목표(5S)가 있습니다.

- 1) 참된 여성(德, Spirit)
- 2) 멋진 여성(香, Song)
- 3) 교양 있는 여성(知, Study)
- 4) 쓸모 있는 여성(用, Skill)
- 5) 아름다운 여성(體, Sport)입니다.

이에 그때그때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교육시책을 준용하여 본교 교육의 중심 교육과정이 이루어집니다.

2. 학교 경영철학은 사람다운 사람(전인교육)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 특성(상업계)고등학교로 시작하였으나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여 일반계열이 많아지고 있지만 모두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 있는 wee-class와 wee-center의 모태가 된 “사랑의학교”도 퇴학을 시키지 않는 학교 운영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사랑의학교”는 1997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한울학원 내에 작은 학교로 시작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전문상담가가 없다가 2006년부터는 치료와 상담을 하였고 2009년, 사교육 없는 학교예산 확보 후부터는 성장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학생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wee can fly라는 캠프와 중하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Leaping class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입학 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내기 캠프도 처음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은 2년 전부터는 원하는 학생들은 성적에 관계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가능성 아니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맡겨진 시대와 지역에서 예수님이 마음을 묻고 응답하는 것이 학원선교의 방향일 것입니다.

3. 학교경영 방침은 성경에서 찾고 있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면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학원 진학과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매년 연수에는 부서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함께 한해를 평가하고 매년을 함께 계획합니다. 명령 하달식 구조가 아니라 교직원들이 직접 더 좋은 학교를 위한 방안을 내고 부서별로 하여야 할 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애교화(聖愛敎化) 기도회, 수요일교직원예배(채플)와 매일아침 금식식 아침 기도회, 금요속회를 통해 학교교육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



정기예배, 절기예배, 행사예배와 종교수업이 있습니다. 2013학년도 학생들의 예배만족도가 매우만족 48%, 만족 39.3%, 보통 10.7%, 불만족 1.1%, 매우불만족 0.4%였습니다. 아직 불만족이 1.5%있지만 졸업생들이 예배와 종교시간을 가장 그리워하고 있음은 큰 다행입니다.

4. 평생교육을 심어주기

한울학원에는 평생교육원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8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한울 학부모 교육”을 진행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80명의 학부모가 24시간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MBTI, 비폭력대화, 행복학등을 통해 가르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편지를 주며 사랑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들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축제, 체육대회 등등 학생지도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에게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 사랑을 실천하는 초원회 봉사운동(공동체 형성체합)

1964년부터 시작한 초원회 봉사운동은 시편23편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과 사람이 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필요한 봉사운동입니다. 풀한 잎 한 잎이 모여 초원을 이루어 만물의 생명이 쉬고 회복하고 치유하여 다시 소성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끈돈과 정성어린 여럿의 손길이 모여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1971년도부터 본교에서도 조그맣게 시작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하고 있습니다. 150여 교직원과 중·고59학급 2,236명의 학생들이 모은 성금과 시간, 헌신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 지역사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1974년부터 불우청소년돕기, 장학금과생활비, 학교급식비 지원, 1994년부터 독거노인위로하기 2008년부터 아프리카지역에 한울우물파기와 2009년부터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일일봉사운동으로 학교주변의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모금운동도 하고 아산시내에 야간 청소년보호 순찰을 하여 지역순화운동뿐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온 가출

청소년들을 적발 지도 귀가 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 농촌학교건립후원과 필리핀 오지학교 증개축비 지원, 캄보디아, 몽골, 농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 자체적으로 검약한 생활을 통한 모금, 금식체험으로 모금, 아나바다장터 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끈돈모아 목돈 만들어 큰돈으로 이웃을 돕는 체험과 습관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문들도 함께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6. 다양한 학습방법

무한경쟁으로 살벌한 학습 풍토 개선을 위하여 인성중심 학습방법으로 자기주도학습, 토론과 협력학습, 멘토사랑의 학습, 동아리활동, 찾아 나가는 체험학습, 크리 스마스카드 그리기와 시화전, 사설쓰기, 일기쓰기, 독후감쓰기등과 문예활동 수학, 과학 동아리 지역사회 찾아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 실시하여 세계를 향한 열린교육을 모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 국제과학프로젝트(I-SWEEEP)올림피아드에서 2011년 은메달(2개), 2014년 동메달(2개), 2013년 SCI급 국제논문 게재 공동저자가 배출 되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법대, 포항공대, 한동대 수도권지역과 대학진학뿐 아니라 2레벨업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전교생들의 학력수준이 올라가 교육개발원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경제적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과 특성화고 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하여 일본, 미국대학과의 자매결연으로 22년간 23명을 추천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진학을





하여 그중에서 2013년도에 일본와세다 대학교 3학년에 편입학을 한 학생도 있습니다. 한울중학교는 2012년부터 매년 호주영어캠프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사고의 폭을 넓고 깊게 하며 사색하고 결단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71년부터 국내 외 명사 초청특강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1회 미국에서 교육학(특수교육과 절대평가연구)을 전공한 장애인 고 강영우 박사(부시대통령 특별보좌관)를 초청했고 2011년부터는 그 부인 석은옥 선생이 특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 60주년기념 강연은 미연합감리회 감독 김해중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예체능분야 활동도 대단히 활발합니다. 매년 학급별 찬양대 합창대회를 통하여 다함께 노래 부르고와 각종 무용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필드하키는 1979년부터 시작하여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고 1985년 일본 카가미노고등학교(기후여상)와 국제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주니어국제대회에서도 국가대표선수로 많이 활동 하였으며 세계올림픽, 아시아경기, 국제경기에 졸업생들이 대표, 선수, 심판 등으로 활동하며 임계숙이 세계 하키여왕 칭호를 받은 쾌거가 있었습니다. 골프, 역도, 댄스스포츠 등에서도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음악분야에서 미국 멘스필드악단을 2회초청 교내공연, 자매군부대공연, KBS공연 등을 하였으며 이화여

고동문합창단을 5회초청 공연을 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마칭밴드는 2005년도에 창단하여 전국1등에 이어 세계1위를 하였으며 일본초청공연도 한 바있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개교60주년기념식때에 세계 속에서 빛나는 동문 홈커밍데이에 대상자 107명중 30여명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7. 학원선교에 대한 제안

한국교회, 특히 감리교회는 학원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감리교의 첫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입국 130년이 되는 해이어서 많은 기념행사들이 열리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재를,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를 세워, 교육을 통해 선교를 시작한 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학교에 대한 국가는 보이는 제약과 보이지 않는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럴 때 교회마저 기독교학교를 외면한다면 기독교학교는 정체성 유지는 물론 나가서는 존속조차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전 교단적으로, 각 교회적으로 돕는 운동이 감리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학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어려움 속으로 끌려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학원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세워 학원선교를 뒷받침해 주기를, 평생 이 일을 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나가는말

기독교계통학교와 감리교계통학교에 속하여 있는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한울가족은 겸손히 온 몸을 바쳐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지혜와 지식과 예체능을 강건하게 전수 시키며 인격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위하여 뼈를 학원에 묻겠다는 생각과 헌신으로 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정에 우뚝 선 개교60주년 기념조형물처럼 세계 속에 빛나는 한울가족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선교 역사를 188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독교학교의 설립의 역사와 일치한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 G. Appenzeller), 그리고 스크랜튼(M. F. Scranton)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경신, 배재, 이화학교 등을 통해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 밖에도 기독교정신을 토대로 세워진 오산, 숭실, 대광, 보성등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 되었다. 교회는 학교를 세웠고,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세상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학원선교 전략은 초기 한국교회의 핵심적인 선교전략이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신앙으로 준비된 교사들과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교육과정, 학교 곳곳에 베어있는 기독교문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신앙양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학원선교의 열매는 매우 풍성하다.

이러한 학원선교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교회의 선교는 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무슨 호들갑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나 최근 학원선교에 닥친 위기는 이때까지의 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학원선교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선교의 현실과 뜨거운 주제를 나누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나누고자 한다.

학원선교의 새로운 위기 : 종자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소위 '강의석군'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의 종교교육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법원에 소송을 한 것이다.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고 강의석 군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이 때 대법원의 승소를 이끌어 내도록 뒤에서 조직적으로 교회의 학원선교에 대응한 단체가 있었다. 그 단체의 이름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다.

본 판결 2심에서 법원은 학교의 종교교육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었으며, 이를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

합승수 목사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기독교학교정상화 추진위원회의

활동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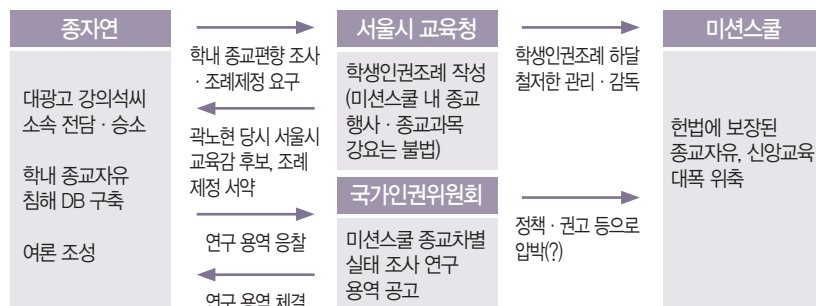
을 내림으로서 강의석 군은 패소하게 된다.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 될 듯 보였으나 이후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변호사 45명, 18개의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거대한 소송팀을 이끌고 강의석 군을 변호하여 대법원에 항소하게 되고, 결국 상기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종자연은 어떤 단체인가?

종자연은 표면상은 인권단체이다. 종교의 자유가 인권의 차원에서 어떻게 위축되고, 반대로 종교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연구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최근 종자연은 가치 중립적인 단체가 아니라 불교단체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재가자(평신도) 중 최고 지도자로 손꼽히는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주도해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단체다. 범종교 시민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불교단체다. 조계종 등 종단과 사찰로부터 수천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난 7년간 대광고 소송과 기독교 종교편향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종교 편향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 고려은단 ‘Jesus love you’ 광고 등 한국교회 관련 사례만 100건 넘게 찾아냈다. 기자회견 세미나 여론조사 민사소송 입법청원 헌법소원심

| 종립학교 분야 |



○○기독교문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신앙양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있다.♀♀

판청구 진정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몰았고 종교차별 명목으로 종교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켰다.(국민일보 6.27)”

종자연의 전략

종자연은 내부 문건을 통해 지금의 불교계의 포교 활동이 위축된 것은 기독교의 포교가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라 밝히며 이를 제약해야 불교가 살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종자연은 기독교학교(종립학교), 공직분야, 대형교회 공격 등 3가지 영역에서 교회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 중 학원선교를 방해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국민일보 기사)

대광고 사태로 학내 종교자유 문제를 이슈화시킨 종자연은 미션스쿨 내 신앙교육을 막기 위해 2010년 5월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당선되면 학내 종교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서약대로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미션스쿨에 내려보내 학내 종교교육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종자연의 예상과 달리 미션스쿨이 강하



게 반발하면서 종교교육 금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종자연의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종자연은 방향을 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수주해 현재 미션스쿨의 종교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종자연 연구 결과는 국가정책이나 권고에 기초 자료가 된다.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에도 시민단체인 것처럼 가장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따낸 것은 문제다. 한국종교 전반의 종교편향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선 가장 공정한 곳에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불교 단체에 맡겼다. 이 자체가 종교편향이다.

국가는 종교차별 실태를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용역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종자연은 종립학교의 기독교 교육을 종교편향으로 보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원죄와도 같은 평준화 제도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근본에는 평준화제도가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설립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자주적·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25조도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독교학교는 종교사립학교(이하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등을 정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종립학교는 종교의 철학에 기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위법이지만,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평준화제도 하에서 학생들의 강제 배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평준화제도 하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선택할 수 없다. 즉 기독교학교이지만 기독교신앙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준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평준화 제도 아래서는 학생들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나라가 불교학교로 배정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며, 그 안에서 일방적인 불교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준화 제도와 학생 강제배정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1

평준화 지역인 ○○시에 위치한 한 불교계 고등학교의 이야기다. 모든 학생들은 불교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매주 1회 법회에 참석해야 하며,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불경외는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경청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 이 학교 재학생의 약 20%가 자신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하였다.

(김재춘, 2006. 종립학교 방문기록)

사례2

집안에서 대대로 독실한 불교신자인 갑은 서울특별시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연합고사에 합격한 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X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예배(일명 채플)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성낙인, 1995:160)

사례1에서는 그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불교계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어 할지 공감할 수 있으며, 사례2에서는 독실한 불교신자가 기독교학교에서 당할 종교적 갈등을 읽을 수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인생의 가장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종교 상처로 인해 겪을 갈

등과 아픔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동정과 연민의 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경건의 분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가?

이 밖에도 평준화제도 하에서 정부는 종립학교를 준 공립학교로 편입하여 사실상 종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을 제한하였다. 이름만 사립학교일 뿐, 사립학교에 보장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유, 교육방법 선택의 자유, 교원 임용의 자유 등을 제한하였다. 불과 몇 년 전에 한국교계가 나서서 목사님들이 삭발까지 감수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청하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이 사태에 대해 좀더 냉철하게 즉 합리적으로 분석해 보자.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종립학교(종교사립학교)가 학교 설립의 취지에 맞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하자면,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대안은 없다

학원선교의 현장은 평준화 제도라는 거대한 암덩어리가 꺾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

결국 기독교학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왜곡된 교육환경을 바꾸고, 온전한 기독교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준화라는 특수한 교육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독교교육은 제한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학교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열심, 다시 말해 교장과 교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학생을 잘 가르치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실상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는 “평준화”제도라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신실한 교사가 있어도 법으로 신앙교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평준화 교육제도 등을 바꾸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종립학교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지난 몇 년 동안 법조분과, 교육분과, 교육행정, 학교분과 등의 전문가들을 모여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포럼”이라는 뜨거운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 법제도와 교육제도 및 기독교학교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 등의 전략을 세워 “기독교학교를 정상화 시키는 것은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메시지를 한국교회에 제시하였다

이제 2013년 9월 11일 교단을 아우르는 대표하는 18개 교회의 교계지도자 뿐 아니라, 가장 많은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두 교단(합동, 감리교단)의 총회장 및 총감독, 그리고 두 교단의 기독교학교 책임자를 포함하여 기독교학교 연맹 및 기독교학교 연합회 등 기독교학교를 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기독교학교를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일치하여 힘을 모으자고 의결하여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기정추)’가 출범되었다

기정추는 학자들이 연구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의 로드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 및 대정부활동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기독교학교의 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 하였습니다. 기정추와 세워진 전문위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한 줄기 빛으로 비춰질 것으로 믿는다.

이용환 사무국장
사)아름다운청소년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통한 학원선교와 교육

2014년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5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최소이수시간제,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의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국 사)아름다운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해 온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가 학교의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또는 학교의 CA,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 학교 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의 02-399-3955).

📌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친구들의 지역을 섬기는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꿈을 발견하는 한 걸음, 자기개발 이야기**
“도란도란 카페에 놀러오세요”

상일미디어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중의 하나로 상일동에 위치하고 있다. 특별히 이 학교의 ‘바이오푸드과’라는 학과에서 사)아름다운청소년들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푸드과’에 속한 친구들은 제과제빵, 커피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방과후 활동으로 케익데코레이션 등의 세분화 영역까지 공부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상일미디어고등학교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과 연계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상상팡팡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카페를 꾸며 ‘도란도란 카페’라고 이름을 짓고, 학교에서 배운 커피, 제빵 기술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빵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고, 현재 2년째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3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에서 포상담당관이신 이선에 선생님은 여성가족부장관 포상을 받았다.

생각을 바꾸게 된 포상제

상일미디어 고등학교 바이오푸드과 이은정

처음 포상제란 것을 들었을 때 고민을 많이했다. 왜냐하면 평소 일을 자주 미루는 성격이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상제를 하면서 이런 습관을 고쳐 보자는 생각으로 하게 되

었다. 포상제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세우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규칙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해서 힘이 들었다. 그리고 활동사진을 찍는 게 힘들었다. 셀카도 찍지 않는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슨 활동을 하든지 카메라를 든다. 그 정도로 사진 찍는 습관이 생겼고 전시회나 체험을 갔다 오면 일기장에 다녀온 장소와 받았던 느낌들을 정리해 감상평을 쓴다. 몇 년 후에 이 기록들을 보면 나는 더 나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개발로 핸드드립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시범을 보면서 좀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깐 물 부을 때 물줄기 굵기도 조절해야 하고 핸드드립 할 때 편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야 하는데 그게 뭔가 더 힘들었다. 그대로 연습하다 보니 친구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을 먼저 배워 보고 활동하면서 지금은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정도로 자기개발을 통해 커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커피와 디저트를 손수 만드는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것 같다. 자기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커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로스팅이 뭔지, 원두가 어떤 조건에서 나는지, 어떤 나라에서 재배가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다.

봉사활동으로 12명이 모여서 재능기부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처음에는 수익이 나면 기부대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로 했다. 우리와 또래인데 어렵게 사는 친구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관심도 생기고 몰랐던 정책이나 실태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카페에서는 서비스 방법, 장부 정리법, 일을 시작하기 전 꼼꼼하게 준비물 챙기는 습관, 책임감을 배웠다. 직접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고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기했다. 내 생각에 포상제 활동 중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봉사활동인 것 같다. 봉사활동을 8개월 이나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단체활동과 책임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초기에는 필요한 물품 챙기는 것들도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먼저 나서서 알아보고 확인한다.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잘 하지도 않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내가 먼저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여쭙어 보는 좋은 습관이 생겼으며, 2014년 2월 6일 그동안의 결산 이익금 80만원을 중증 장애우를 돕는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

신체단련 과 탐험활동으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내가 운동을 하게 되었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다. 특히 탐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많이 키우게 되었다. 설악산을 다녀온 뒤 주변에서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우물쭈물 하던 내가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게으르던 내 생활습관도 포상제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포상제를 하면서 자신감 뿐만 아니라 도전정신도 얻은 것 같다. 옛날엔 ‘떨어지면...’ ‘틀리면...’ 이런 생각을 해서 도전 해볼 수 있는 일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떨어지더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포상제는 나에게 용기를 갖게 해준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얻은게 너무 많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것이다. 아직 포상제를 모르는 내 또래, 주위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싶다.

한양대학교 교양과목 사회봉사 학점제도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 연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24세까지의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의 모든 학년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사)아름다운청소년들은 한양대학교의

교양과목인 ‘사회봉사학점제’라는 교과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내년에는 1학년 교양필수 과목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사)아름다운청소년들의 리더십을 길러주는 탐험활동 이야기

‘나를 만나러 가요’ 한양대학교 의예과 1학년 조승원

산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묘미가 있다. 특히, 설악산만의 묘미가 참으로 많았다. 먼저, 여러 가지 봉오리를 넘으면 넘을수록 새로운 광경과 마주할 수 있었다. 한 봉오리를 넘고 그 다음 장면을 바라보면 또 새로운 산의 모습, 그리고 또 새로운 산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고, 힘든 길도 행복하게 갈 수 있게 해주었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때로 설악산과 같이 평온한 장소와 오래 마주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나라는 존재의 심연이다. 마음과 몸이 평화로워지고, 인공적인 것 하나 없이, 핸드폰이 주는 소음 하나 없이, 자연 속에 폭 빠져들다 보면, 자연을 느끼게 되는 것을 넘어서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는 별거벗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빠져들게 된다. 이 광활한 대지의 모습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 삶은 어떤 길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등등 산이 삶이고 삶이 산과 같기에 그 깊숙한 심연으로 더욱 쉽게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산과 이 도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혼의 교제의 여부였다. 그렇기에 나의 영혼이 산을 타고 난 뒤에 목마름을 느꼈다. 자연 속에 존재하던 나는 육적인 것들과 동시에 영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더욱 느꼈기 때문일까. 동료와의 대화도, 친구와의 대화도,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하던 내용과는 달리, 무언가 더 깊이 무언가 더 발가벗은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더 진심이 담길 수 있었고,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떠나서 나와 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픈 열망을 느꼈다. 하지만, 도시는 그렇지 않았다. 인공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들로 둘러싸여 있고 죄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며, 영혼을 갉아먹으려는 것들로 가득하다. 벗어나기 쉽지 않다. 버티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친구와의 대화, 사회에서의 만남은 의미는 공허하고 익살은 가득차 있다.

산에서 존재하는 동안, 도시에서의 나와 산에서의 내가 느끼는 차이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매체의 유무였다. 내게 강요하는 매체가 아무것도 없었다. 페이스북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흔히 이 시대의 ‘트랜드’들, 내가 따라가고 좇아야 할 것만 같은 내 친구들과 사람들의 ‘가치관들’, 좋아요가 많다는 것은 대세라는 것 결국 주류라는 것. 이러한 가치관들, 사상들, 생각들을 강요받고, 뉴스,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도 흔들리고, 나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다. 내게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필터링하는데에 급급해, 나라는 존재와의 깊은 대면의 시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나만의 문제일수도 있다. 바쁘게 공부해왔고, 많은 가치관과 충돌해왔던, 나만의 길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설악산과의 만남은, 나와 설악산과의 만남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던 시간이었다.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내가 선명하게 비춰지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다. 척박한 사막길 속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란,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비친 나의 자아를 보는 재미란.

설악산과의 만남. 그 만남이 다시금 또, 그리워진다.

 **노원구 재현중학교, 영신여자 고등학교, 상원중학교**

2012년 노원구 발대식(영신여고 교직원 및 전교생)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1회 학생봉사활동이야기공모전 은상 수상

2014년 재현중학교 중량천 수질개선 사업

2012년 6월 16일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영신여고 및 지역학교 청소년들과 감리교회 노원지방 목회자 및 성도, 국회의원, 지역단체장, 영신여자 고등학교장, citi 그룹 임직원 등 2,500여명의 봉사자들이 모였다. 영신여자고등학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노원에서의 작은 시작이 영신여자 고등학교 전교생과 citi 그룹 창립 200주년 기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임직원 1,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어 백사마을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영신여자 고등학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CA 동아리활동으로 청소년들은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벽화사업을 진행했다. 마을의 어르신들과의 어색한 첫 만남에서부터 그동안 없었던 소통이 시작되었다. 마을 할머니 한분은 “예구, 고맙구먼” “기왕에 페인트 칠하려면 전봇대에 색을 입혀주지, 배달원들이 집 찾기 어려운데 전봇대에 색을 칠해주고 그림을 그리면 노랑색 전봇대 옆 해바라기 집...이러면 찾기 쉬울 텐데” 하는 등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작은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이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우니 쇼핑 대행해드리기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의 현장이 된 것이다.

발대식이 열린 이날 청소년들은 벽화를 그리고 쌀을 배달하고, 즉석에서 여선교회 회원들이 부쳐준 맛있는 전을 배달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주도했던 영신여자고등학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아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학생봉사활동 이야기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2012년 11월 영신간호비즈니스고에서 참여하는 백사마을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이 추진되었고, 노원지역의 중고등학교로부터 봉사활동에 관한 문의가 활발해지고, 학교와 학생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기분좋은학교 프로젝트를 사)아름다운청소년들이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재현중학교 중학교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중심으로 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2014년 7월 물이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당현천 수질개선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다. EM 흙공을 만들고 참여하는 가운데 물의 소중함과 자연보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된 청소년들은 단순한 흙공을 만들고 개천에 던지는 행사를 지역사회 등에 홍보하여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다.

영신여고는 2012년부터 교목실에서 포상제를 시작하였다. 지역 목사님들과 연대하여 40여명의 학생들이 시작하였고 동장과 은장을 마쳤다. 학생들에게 좋은 활동으로 소개되면서 2013년 2014년에도 지속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다. 4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교회에 모여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유지부와 어린이 예배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많은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C.A 선생님, 또는 목사님 하면서 인사도 하고 상담도 하게 되었다.



| 감리교 계통학교(초, 중, 고)와 자매교회 현황 |

No.	법 인	이사장 (설립자)	학 교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당자
1	계훈학원	정계훈	팔봉중학교	조영선	박정수	서산제일교회	이구일
2	관악학원	정의선	서울관광고등학교	조금석	조원철 곽정석	중앙교회	정의선
3	광성학원	최준수	광성고등학교	엄재유	김신원	은제교회	김응용
			광성중학교	남원진	허광열	성광교회	방원철
4	대전대신학원	이강년 (이기역)	대전대신고등학교	김영노	서정식	천성교회	조성근
			대전대신중학교	강정현	박남규		
5	덕신학원	강효성	덕신고등학교	어영숙	김세환	강화중앙교회	장영철
6	동성학원	양제만 (김득연)	경화여자고등학교	최진순	김정석	신풍교회	김연규
			경화여자중학교	김인화	우종억	대림교회	임준택
			경화여자-비즈니스고등학교	서영옥	강태욱	만나교회	김병삼
7	매향학원	김호섭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박정화	강영옥	수원종로교회	안희선
			매향중학교	김혜숙	김학석	영화교회	김철
8	명지학원	송자	명지고등학교	황남택	김중화	모래내교회	윤병조
9	문영학원	박종세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방원자	김남수	광림교회	김정석
			서울문영여자중학교	한정훈	이경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한상국	박성환		
10	배재학당	황방남	배재고등학교	김용복	장운석 박성중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배재중학교	서명석	신영경 김상진	수표교교회	김용성
11	배화학원	정하봉	배화여자고등학교	유환옥	이기성 장은식	자교교회	신현구
			배화여자중학교	홍대희	김은철	종교교회	최이우
12	산돌학교	전용재	산돌학교	이은재	서형준		
13	삼일학원	서철	삼일공업고등학교	소진억	김학규	수원성교회	지상천
			삼일상업고등학교	민찬홍	김경진	도봉교회	이광호
			삼일중학교	이구섭	박진성	안양교회	임용택

No.	법 인	이사장 (설립자)	학 교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당자
14	서울예술학원	이대봉	서울예술고등학교	금난세	임영호	세검정교회	황문찬
			예원학교	이종기	서세훈	아현중앙교회	이선균
15	송도학원	이수영	송도고등학교	오성삼	조희영	부천성은교회	허원배
16	양정학원	김성희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이봉식	하은용	이천중앙교회	김종필
			이천양정여자중학교	장대식	문은실		
17	연풍학원	최애도	세경고등학교	이준화	김중배		
					신성훈		
			파주중학교	이승정		삼양교회	차창규
18	영명학원	표용은	공주영명고등학교	이기서	유혜중	공주제일교회	윤애근
			공주영명중학교			공주중앙교회	황충호
19	영화학원	김흥규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김정연	이광선	내리교회	김흥규
			영화초등학교	안태홍	강주현		
20	이화학당	장명수	영란여자중학교	김애희	이평일	예수마을교회	임석한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최진자	이대길	금호제일교회	채교열
					차은혜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	한종임	이현숙	창천교회	구자경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이영하	조종철	대신교회	홍원영
21	이화학원	이기우	이화여자고등학교	강순자	이영복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이화여자외국어고	한현수	김형석	은평교회	김영현
			팔렬중고등학교	신학봉	이광채	월곡교회	김종훈
22	인덕학원	박오순	인덕공업고등학교	이경식	최철기	성천교회	김인종
23	재현학원	김진우	재현중학교	기우탁	김의태	서울제일교회	심규환
24	천일학원	한주호 (박준구)	천성중학교	조만휘	김봉환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천안상업고등학교		서경진	하늘샘교회	이성수
25	태광학원	김기영	태광고등학교	최종일	최한영	기쁜교회	손웅석
			태광중학교	황지연			

No.	법 인	이사장 (설립자)	학 교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당자
26	한울학원	김진우 (박우승)	온양한울고등학교	박우승	김향아	한마음교회	최형근
			온양한울중학교	권영일	이성재	대명교회	김영호
27	호수돈학원	이경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김충일 (직대)	주금섭	대전중앙교회	안승철
					김혜숙		
			호수돈여자중학교	임광순	김형일	논산제일교회	남문희
					강석구		
			청신여자중학교	강신호		청양교회	김종태
28		박만용	태화국제학교	윤정호	오창환		
29		박명홍	웨일즈국제학교	성백	김상국	군자중앙교회	박명홍
					박재현		
30	성순학원	이명숙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정광호	조성철		
					유재훈		

| 감리교 계통대학교 현황 |

No.	법 인	이사장	학 교	총장	교목
1	감리교신학원	이규학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종천	
2	감리교학원	박영태	목원대학교	박노권	안승병 이광주 손삼권 김철성
3	배재학당	황방남	배재대학교	김영호	이성덕 이성구 송광수
4	배화학원	정하봉	배화여자대학교	김숙자	김언영 전병식 김영석
5	삼일학원	서철	협성대학교	장동일	유성준 이광선 손성수 이진경 이주희
6	새빛학원	임승룡	안산대학교	김주성	김재중 노현수 김성희 김진희
7	성암학원	이재식	남서울대학교	공정자	이사야
8	연세학원	김석수	연세대학교	정갑영	조재국 한인철
9	이화학당	장명수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양명수
10	인덕학원	박오순	인덕대학교	이우권	구완서 장형철
11	실천신학대학원	홍성국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요한	
12	한양학원	김종량	한양대학교	임덕호	이천진

학원선교회 조직+

고 문	김진호 신경하
자문위원	황방남 김기택 임준택 강일남 김인환 김동걸 조성근 문충웅
지도위원	강홍복 고달수 김보영 강문호 윤병조 이종용 김순영
회 장	김종훈
부 회 장	남문희 박춘희
총 무	김영호
부 총 무	황한진
협동총무	정현범
서 기	홍원영
부 서 기	심규환
회 계	박찬수
부 회 계	신태하
감 사	이용원 차창규
간 사	유 경

교목회 조직+

중 · 고등학교		대 학 교
회 장	서 정 식	전 병 식
총 무	김 은 철	이 사 야
서 기	김 신 원	
회 계	하 은 용	
감 사	김 학 규	

기독교 학교 교육 **현장+**

- 1**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임을 믿는다.
-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대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는다.
- 3**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나 숙명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터전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의 목적과 완성의 날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믿는다.
- 4**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로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성이 개조될 수 있음을 믿는다.
- 5**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악과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협조적인 새 질서를 수립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 기독교학교가 가지는 독특하고 신성한 사명임을 믿는다.

(1970년 9월 25일 제정)

